

국회의원 선거구 '數싸움' 시작됐다

정계특위 공식출범 ... 광주·전남·전북 12곳 조정 대상
호남 의석수 감소 땀 정치 역량 축소 ... 지키기 나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계특위)가 18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된다고 해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의석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지난해 국회의원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 기준(13만8,984명)에 미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는 4곳(광주 동구, 여수 갑, 무안·신안, 고흥·보성)이다.

별다른 계기가 없다면 현행 소선거구에서 광주·전남에서 최소 1곳 이상의 선거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광주는 동구와 북구와의 구간 경계조정이 관건이다. 동구가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북구 읍은 인구 상한선 기준(27만7,966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남의 변수는 고흥·보성이다. 고흥·보성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을 붙이느냐에 따라 전남의 선거구 지형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수 갑은 여수 읍과의 동간 경계 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무안·신안도 인근 지역과의 통합이 이뤄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곡성은 인구 상한선 기준을 넘는다. 순천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구는 27만8천903명이다. 하지만 인구 상한선 기준을 간신히 넘는다는 점에서 분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계특위에서 300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재획정에 나설 경우, 인구수가 최소한 29만명은 돼야 분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곡성 분리론도 나오고 있으나 인근 지역구

조정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
※괄호는 인구수(2014년 9월말 기준)

■ **초과 선거구** (전국 37·호남 4)

광주 북구(294,355)
전남 순천시 곡성군(308,182)
전북 전주시 덕진군(287,653)
군산시(278,119)

■ **미달 선거구** (전국 25·호남 8)

광주 동구(101,656)
여수시갑(125,667)
전남 고흥군 보성군(115,800)
무안군 신안군(125,488)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105,122)
전북 남원시 순창군(115,442)
고창군 부안군(117,757)
정읍시(117,524)

■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명>**

총인구	선거구	평균인구	하한인구	상한인구
51,284,774	246	208,475	138,984	277,966

에 붙인다고 해도 전남 선거구가 한 석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 상황이 심각하다.

4곳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고 2곳이 인구 상한선을 넘어 최소 1~2석의 의석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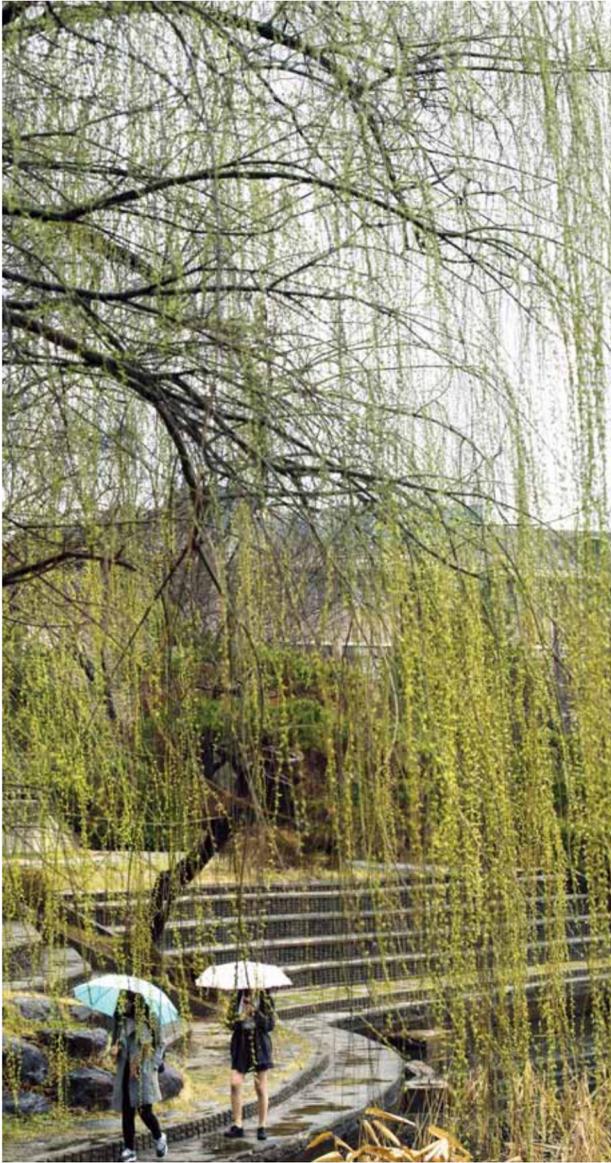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도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에 뱀방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비례대표가 100석 안팎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적은 광주·전남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면 호남·제주는 현행 33석에서 34석으로 한 석이 늘어나는 반면, 영남은 67석에서 78석으로 11석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호남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정치적 역량 축소를 가져오면서 호남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획정에 있어 인구 기준 외에도 행정구역, 생활권, 역사·문화 요인 등 지역 대표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농 복합 선거구제 등을 도입,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봄비 내리는 날의 캠퍼스 18일 전남대 용주 주변으로 길게 늘어진 능수버들 잎 아래로 학생들이 봄비를 피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 21.0mm를 비롯, 여수 64.1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BO의 알팍한 상술...관객 음식 반입 금지 매장선 술 팔아 ▶7면

'임~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총력

5·18 역사왜곡대책위

학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위가 국회 실측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2013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이 기념곡 지정 절차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일관 되게 부정적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관련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또 내달 초 '시국회의'를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대책을 비롯한 미지정시 올해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번 회의에서 5·18 행사 전까지 기념곡 지정이 미뤄질 시엔 행사 참여 거부 또는 참석자 전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의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제3기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
장하성 고려대 교수 첫 강의**

대기업, 그들만의 전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이날은 한국의 자본주의의 현상에 대해 "진보가 보수와 함께 만든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진보는 현실은 무시한 채 이념만 지켜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분배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은 투자중심이 아니라 임금의 분배를 통한 소비확대를 꾀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경기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실천도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돈을 사회에 충실히 배분하도록 정치권에서 법안을 만들고, 국민이 이러한 정치인들을 위해 선택적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어? 성경이 읽어지네!

- 일시 :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 장소 :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역 과정 개강

문의 : 062) 605-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협력 신성자동차(주) 광주 한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승부공간 확대 및 성능 향상
신성자동차(주) 광주 한서점

2015년 4월 14일 기준
E 200 1,999cc, 1,639kg, 7G-TRONIC PLUS, 4400rpm/12.8km/h(55km/h) 10.5km/h, 318km, 4400cc/배출량 14.6kg/km
E 220 CDI 2,143cc, 1,700kg, 7G-TRONIC PLUS, 4400rpm/16.3km/h(55km/h) 14.2km/h, 318km, 4400cc/배출량 12.0kg/km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55kg, 7G-TRONIC PLUS, 4400rpm/14.1km/h(55km/h) 12.4km/h, 318km, 4400cc/배출량 17.0kg/h, 318km, 4400cc/배출량 14.0kg/km
E 300 3,498cc, 1,790kg, 7G-TRONIC PLUS, 4400rpm/9.7km/h(55km/h) 8.4km/h, 318km, 4400cc/배출량 11.8km/h, 482km, 4400cc/배출량 18.3kg/km
E 300 4MATIC 3,498cc, 1,800kg, 7G-TRONIC PLUS, 4400rpm/9.1km/h(55km/h) 8.0km/h, 318km, 4400cc/배출량 10.9kg/h, 582km, 4400cc/배출량 19.6kg/km
E 350 BlueTEC 4MATIC 2,963cc, 2,040kg, 7G-TRONIC PLUS, 4400rpm/12.6km/h(55km/h) 11.2km/h, 318km, 4400cc/배출량 14.7km/h, 318km, 4400cc/배출량 13.0kg/km
E 400 4MATIC 2,996cc, 1,950kg, 7G-TRONIC PLUS, 4400rpm/9.3km/h(55km/h) 8.1km/h, 318km, 4400cc/배출량 11.5km/h, 592km, 4400cc/배출량 19.0kg/km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4400rpm/17.0km/h(55km/h) 14.5km/h, 318km, 4400cc/배출량 23.0kg/km
*본 연차형 차량은 2015년 4월 14일 기준입니다. 4400rpm/17.0km/h(55km/h) 14.5km/h, 318km, 4400cc/배출량 23.0kg/km